

지금 이시각

2024. 5 TIME NOW

스물세번째



줄 리

내 친구 페티

김희진

지치지 않기 위해

X

그 곳에 가고싶다 : 대전

오종원

자전거를 타자 : 화천DMZ캘리

이채연

여행의 장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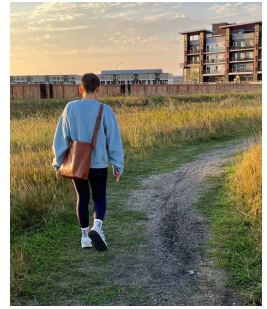
Pighead Lab



표지이미지 :

나름 유명 순대국 프렌차이즈.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던 순대국의 편견은 물론, 프렌차이즈 음식은 별로일 것이라든가 어리석은 견해 또한 사라지게 해주었다. 순대국을 싫어하는 것은 아니나, 소위 “국밥집”이라고 한다면 떠올릴 수 있는 어떤 위생적인 불편이 있을 때가 있다. 나는 유난히 그런 지점에 예민한 편인데, 본 프렌차이즈는 확실히 인테리어나 위생적인 지점에서 신경을 많이 쓴 것이 느껴진다. 아니 신경을 쓴 것을 넘어서 오히려 고급 한식집과 같은 분위기를 만들어 젊은이들이나 손님을 모시기도 좋을 정도로 구성해 놓았다. 또한 순대국이 가질 수 있는 어떤 꾸릿하거나 비릴 수 있는 냄새도 나지 않아 너무나도 깔끔하게 떨어지는 맛이다. 물론 이 지점은 취향이 갈릴 수도 있겠다. 메뉴에 있는 오징어 볶음이나 육회를 시키면 막걸리 한 두 병은 딱딱이다.

내 친구 페티



줄 리
음식예술가

그녀를 처음 만났던 날은 레스토랑 쿡 면접을 보고, 주방 시스템과 냉장고, 냉동실, 창고등의 위치 등을 파악하고자 주방 문을 들어서던 날이었다.

그녀도 나도 서로의 만남이 미리 예고 되어 있던 게 아니어서 짧은 순간이었지만 서로에 대한 본능적인 탐색전은 어쩔 수가 없었다.

그녀가 나를 처음 봤을 때 나에 대한 인상은 어땠는지 모르지만, 그녀에 대한 나의 느낌은 동양인에 대한 경계심인지 아니면 낯선 사람에 대한 경계심인지 모르지만 밝은 미소 뒤에는 경계심으로 가득해 있었다.

그녀와 처음 같이 일하는 날 나의 느낌은 전혀 틀리지 않았음을 단번에 알아 차릴 수 있었다.

하지만 요리사로서 그녀가 가지고 있는 자부심은 어느 일류 호텔의 수석 셰프 보다 더 높으면 높지 낮지는 않다.

위생관념에서부터 재료 손질까지 그녀가 하는 말은 철저하게 지키려고 노력하는 중이다.

요리 하기 전 손 깨끗이 씻기, 고기 손질 후 도마, 칼등 세제로 깨끗이 씻은 후 식기 세척기에 돌리고 고기 만진 후 손은 반듯이 씻기, 모든 식기는 세척 후 완벽하게 물기 제거 후 보관 하기. 그리고 무엇보다 더 오너인 사장님보다 주방을 더 사랑하고, 음식은 맛있게, 모든 물건 식재료에 대해 손실률을 최소한 하려고 노력한다.

가끔 내가 주문을 잘못 이해해서 요리를 잘못 내거나 , 오버를 하게 되는 경우 그녀의 분노(?)에 가득찬 눈빛은 잊을 수가 없다.

사장님은 그녀와 같은 직원이 있음에 정말 감사해야 하는데,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나보다.

내가 실수할 때 마다 하나 하나 보여 주면서 지적하지만 그런 그녀가 나는 믿지가 않다.

그녀를 통해서 잠시나마 잊고 있었던 그리고 몰랐던 것들에 대해 하나 하나 배울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그녀도 실수를 하거나 잘못 계량하는 경우도 다반사 이지만 세상 그 누구에게 보다 자신에게 관대한 패티가 나는 귀엽다.

40여년 이상을 주방에서 보내왔으니 그 내공에 대해 그 누가 감히 배놔라 감놔라 할 수 있겠는가?

철저하게 퇴근시간 30분 전에 모든 주방 도구 및 재료들을 정리하고 퇴근 시간에 오더가 들어와도 bye라고 손을 흔들고 가는 쿨한 그녀,

주문서가 계속 밀려와 패닉 상태가 되어 있는 내게 stop이라고 외치는 그녀.

쉬는 시간 마다 휴게실에서 불을 끄고 넥플릭스를 보면서 간단한 식사를 하는 그녀.

야채로 가득찬 내 도시락을 보면서 Oh my god I am not a rabbit!!이라고 말하는 그녀

간단한 계란 요리부터 온도 조절에 민감한 스테이크 요리까지 모든 과정에 진심인 그녀.

어깨가 아프다며 힘든 재료 손질이나 귀찮은 작업들은 내 차지로 남겨놓는 그녀.

그런 그녀에게 나는 매일 사랑한다고 말한다.

사랑한다는 말을 쉽게 내 뱃지 못하는 나인데, 그녀에게만은 무한대로 사랑한다고 말해주고 싶다.

아마도 그녀가 가지고 있는 요리에 대한 자긍심이 나를 이렇게 변화 시켜 준게 아닌가 싶다.

한국에 대해 많이 알고 있지 않은 패티에게 한국 음식 중에서 가장 맛보고 싶어하는게 무엇인지 물어 보니 치킨을 말한다.

매운 것을 못 먹는 패티를 위해서 오늘은 누구나 손쉽게 만들 수 있는 간장 치킨을 소개하고 싶다.

신선한 닭봉, 혹은 닭 정육, 닭다리등 1kg 기준으로 준비한 후 우유에 30분 정도 담궈둔다.

그리고 깨끗이 씻은 후 소금, 후추, 갈릭파우더, 커피분말1t정도 넣고 냉장고에 4시간 이상 재워둔다

물반컵, 간장 4TS, 설탕4TS 물엿1TS, 굴소스1TS, 맛술1T을 잘 저어 미리 소스를 만들어 둔다.

닭1KG에 전분 가루를 넣고 골고루 닭에 전분가루가 잘 묻히도록 섞어둔다.

이때 비닐 봉지에 전분가루를 넣고 닭을 넣고 흔들어 주면 손쉽게 전분가루를 닭에 입힐 수 있다.

180도 예열된 기름에 노릇하게 튀겨 낸 후 한김 식혀서 다시 한번 빠르게 튀겨 내면 더 바삭한 튀김을 맛볼 수 있다.

만약 튀기는 것을 선호하지 않다면 에어프라이거나 오븐을 사용해도 좋다.

나는 건강상의 이유로 오븐에 굽는 것을 더 좋아한다.

후라이팬에 기름을 살짝 두른 후 간 마늘 1T을 넣고 마늘 향을 내어 준 후 미리 준비한 소스를 넣고 기포가 올라올 정도로 바글바글 끓여 준다.

그리고 미리 튀겨 놓은 닭을 넣고 센불에서 소스에 버무려 주고 마지막으로 고소한 참기름 한방울 뿌려 주면 맛있는 단짠단짠 간장 치킨 완성이다.

패티가 하루 빨리 간장 치킨을 맛볼 수 있는 날을 만들어 보아야겠다.
과연 그녀가 어떤 표정을 지을 지 벌써부터 궁금해 진다.

멋진 선글라스에 바람막이 외투를 휘날리며 투사처럼 주방문을 열고 들어서는 패티가 얼마나 멋있는지 그녀는 알까,
다음에 내가 영어가 능숙해지면 나에 대한 그녀에 마음을 다 전달하고 싶다.
지금은 짧은 영어로 나는 너를 친구로 생각하고 항상 고마워하며 사랑하고 그립다고 말하지만 언젠가는 나에 진심을 다 말하고 싶을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오늘도 어김없이 그녀는 나를 부르고, 내가 잘못된 점을 찾고 지적하고, 이야기 하겠지.
나는 그런 그녀가 참으로 좋다.
내가 그녀를 만나기 위해서 캐나다 온 게 아닌가 싶기도 하다. 🐱



이 채 연

창작가 /

관심 받고 싶어 하는 주부

여행의 장면

지난 2월16일 부터 28일 태국의 꼬라비와 방콕을 다녀왔다.
3월호에 이어 여행 중 인상에 남은 장면을 기록한다.

방콕에 있을 때 머문 숙소는 정원이 있는 가정집을 개조한 카페 위에 있다. 진한 밤색의 앤틱느낌의 가구와 흰색 침구가 어우러 진 방이다. 창문이 정원 쪽으로 나 있다. 방충망이 있었다. 이제까지 경험한 동남아 숙소에는 방충망이 없었다. 벌레가 들어 올 까봐 창문을 안 열었는데 열 수 있어서 좋았다. 관광지에서 가깝지는 않지만, 구글지도 보며 동네 탐험하는 재미가 있었다. 숙소 아래 카페의 음식도 맛났다.

관찰은 숙소였다.
그 중 제일 좋았던 것은 역시 창문!
빛나는 초록이 가득한 창!!
적당히 새소리도 들린다.

그려놓고 보니 실제가 훨씬 좋은 것 같다.
아.... 잘 그리고 싶다..... 내가 본 느낌대로 전달될 수 있게



그림1_빛나는 초록이 가득한 창, 디지털 페인팅, 2024



그림2_쳐진 개, 디지털 페인팅, 2024

방콕 근교의 유적지 आयुताया에서 본 것

유적
사생화 그리는 사람들
오래된 나무
축 쳐져 있는 개
간간히 부는 바람

더워서 그런가... 개가 기운 없이 누워있다.
마음이 쓰였다.



그림3_고양이를 보는 아들, 디지털 페인팅, 2024

꼬라비 동라일레이 슈퍼에서

이 슈퍼는 낮에는 슈퍼마켓, 저녁에는 테이크 아웃용 음식으로 햄버거랑 샌드위치를 조리해서 판다. 숙소와 상점가를 오가다 봤다. 사장님과 조리도구에서 왠지 포스가 느껴졌다. 거기다. 검색해보니 구글 평점이 괜찮아서 먹어 보기로 했다. 우리가 갔을 때는 지나다니면서 본 사장님 같았던 아주머니는 없었고, 딸 인듯한 교복을 입은 소녀가 있었다. 이 아이가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싶어서 주문하기가 망설여지기도 했지만, 다른 먹거리 찾기가 귀찮아서 주문했다. 소녀는 살짝 자신 없는듯, 가우뚱한 미소를 지으며 음식을 만들었다.

음식을 기다리는 동안 고양이가 누워 있는 의자 옆에 아들이 앉았다. 아들은 고양이가 자기를 봐주기를 기다렸다. 안 봐준다면 빠지기도 했지만... 귀엽다. 둘다!

주문한 음식이 나왔다.

포장한 음식을 들고 해변에서 일몰을 보며 먹었다.

샌드위치는 친구 딸이 만들어 주었을 것 같은, 기특한 맛이 난다. 🐱



김 희 진
노동자

지치지 않기 위해

시선은 그 자체로 유동적이다. 오히려 정지라는 말이 어색할 정도로 눈은 연속적으로 움직인다. 눈을 감고 있을 때에도, 눈을 뜨고 있을 때에도, 그 안의 상념과 함께 안광을 가만히 둘 수 없다. 이 관찰이 상황을 결정한다. 반대로 그 이전의 모든 것은 불확정적이다. 매우 훌륭한 형태의 파동함수로 모든 물질이 이루어져 있다. 본질의 성질이 가변적이라는 뜻이다. 나는 연극을 그 자체로 바라보고 싶다. 예술이 구체적 내려티브 없는 그 자체로 해석되기를 바랐다. 그냥 보임에 따라 그 이야기를 자신의 파동함수로 결정할 수 있는 작업을 중시하고, 가장 간단한 메커니즘을 가진 체, 누구든 시행할 수 있는 방법을 따르도록 했다. 예술의 권위를 한 층이나 두 층 정도 내려놓도록 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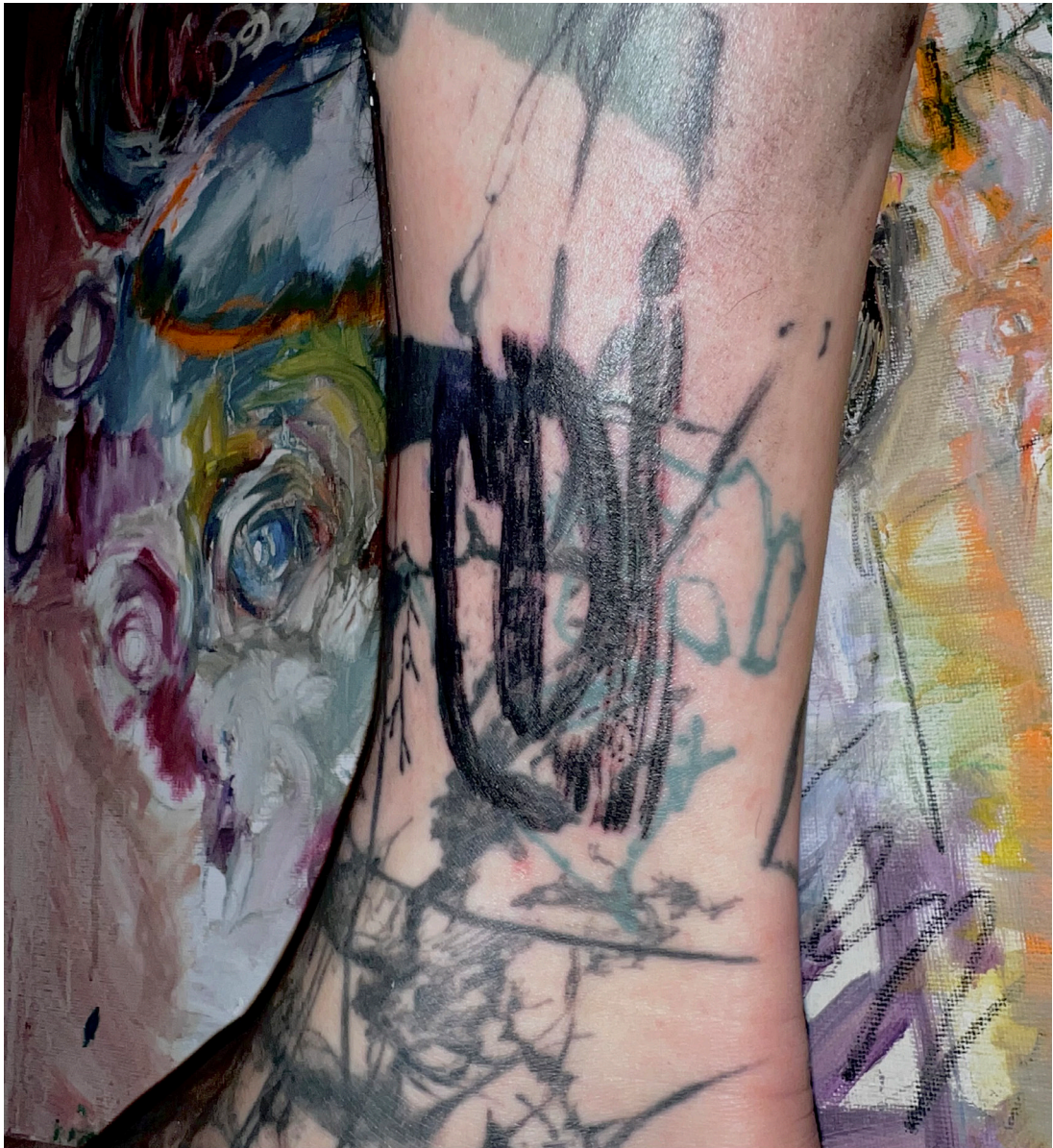
소재 또한 매우 흔한 것, 또는 잠깐 좋아함을 받을만한 핫한 것들, 이 정도가 작업의 루틴이며, 의미이다. 술기 조금 더 들여다보면, 어떤 것이 바탕이 된 무대이며, 보조가 된 배우인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조금 더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분명히 알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다. 사건의 선후 관계도 조금만 더 살피면 파악할 수 있다. 하지만, 향유자에게는 딱히 중요한 술기가 아니다. 잠시 보고 지나칠 수 있는 새로운 이미지인 것이다. 아무것도 아닌 시계의 울림이 커 보일 때가 있다. 내가 꼭 듣고 싶은 말이거나, 절대 듣고 싶지 않은 말일 때 그렇다. 그것이 술기와 닮아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대개 그것은 내가 만든 환상이니까. 하필이면 여기서 능동적인 소비자가 된 것이다.

다시 생각해보면, 지금의 이미지 소비도 다소 그러하다. 무슨 의미인지 알기 위해서는 너무도 복잡하게 얽힌 담론을 하나씩 풀어가야 한다. 향유자에게는 잠깐 시선을 내려놓을 만한 이미지가 필요한 것 뿐 인데, 행위자는 다시 매끈한 돌의 제련 과정을 요구하는 것이다. 지금의 연극은 연극 그자체로 예술적이지 않다. 어쨌든 적어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향유자에게, 나에게 편하다. 부진한 나는 오히려 하고 싶은 것이 너무 많다. 박수치고 감상할 때, 매체의 우위를 정하는 것은 멍청하다. 애초에 같은 논의를 시행할 수 없으니 그렇다. 설득하고, 설득 당함을 유보하지 말자. 권위보다 맥락이 더 중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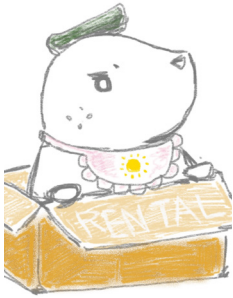
나는 언제까지 청년일 수 있을까. 매초에 손가락으로 셀 수 없는 약을 먹던 어제와는 달리 한결 가벼워진 지금은 오히려 다시 감각에 예민해졌다. 소리 없는 TV를 보며 웃는다. 어제는 선생이 내게 본질은 믿는 자에게만 있는 것이라고 했다. 그를

운운하며 나를 버릴 바에야 차라리 근본 없는 나에게 주어진 자격증을 누리라고 했다. 항상 나는 안하는 내가 밉다. 그래서 누가 알팍한 칼날을 들이대면 그것을 내 심장에 맞추어 꽂았다. 상처는 그/그녀가 아니라 내게서 오는 것이다. 하지만 이 예민한 창조가 끝났을 때 내 청년기도 그럴 것 같은 두려움이 따로 든다. 그래서 쉽게 놓을 수 없다. 차라리 가려져 있었다고 하더라도 어땠을지는 알 수 없다. 괜히 얼굴로 손을 가리고, 좀 더 잘할 수 있었을까하는 고민을 했다.

최근에 더 많은 것을 보이려고 노력했는데, 해소되지 않는 갈증이 있다. 누구에게나 가까운 사람이 되고자하는 것은 아니지만 굳이 혼돈을 주고 싶진 않았다. 거짓 말을 일삼다보니 나도 좀 헛갈린다. 모든 상상을 포함하는 세계를 지배하는 법칙은 파동적으로 기술된다. 이에 따라 총알의 초기 시간과 위치, 최종 시간과 위치가 주어지면 관통은 시공의 모든 경로를 거쳐 이동한다. 그리고 모든 경로에는 각각 적절한 가중치가 할당되어 있다. 좀 더 직관적으로, 총구는 항상 바이올린 형태의 파동으로 움직이고, 이 파동들이 서로 부딪히는 상황에서 탄생이 일어난다. 그 자체로는 점이지만 공간에 퍼져있기에 통치적이다. 이상적이고 동일한 조건에서 사냥을 반복한다 하더라도 일정 이상의 오류를 항상 갖는다. 이는 어떤 지점에서 능력이 보존되지 않음을 의미한다. 임자의 위치가 출렁이기 때문이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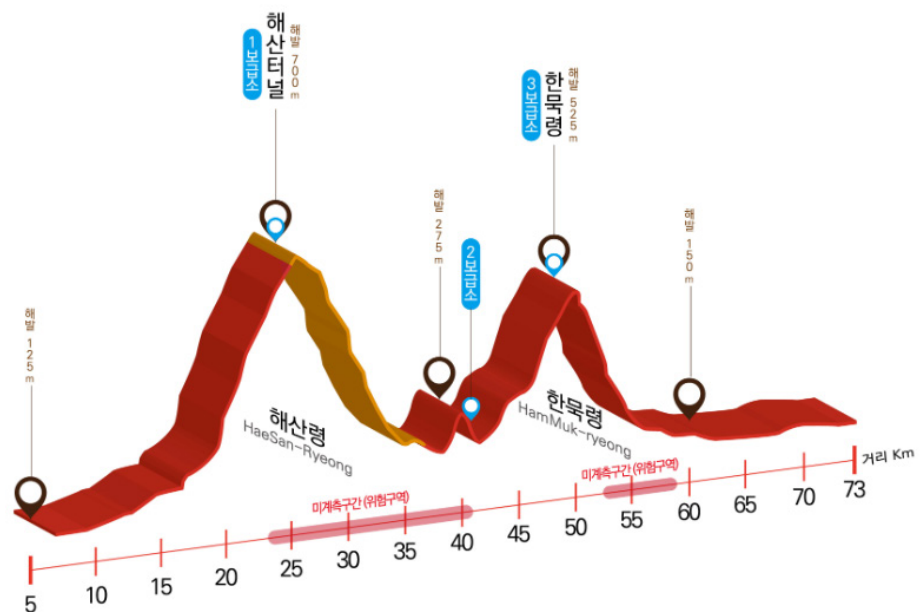


오 종 원
문화예술인력 /
피그헤드랩 운영

자전거를 타자 : 화천DMZ랠리

자전거 대회. 이 글을 쓰는 순서로 따지자면 아직 언급하기 멀었지만, 이번 5월 12일(일) 강원도 화천에서 열린 화천 DMZ 랠리(이하 화천 랠리)를 갔다 오고 그 흥분감이 가시기 전에 글을 쓰고자 한다.

화천 랠리의 경우 국내에서 손꼽히는 인기있는 대회 중에 하나이다. 강원도 화천 정도라면 서울에서 당일로 오갈 수 있는 거리에, 대회 코스 자체도 73km 정도로 자전거를 본격적으로 타보기 시작했다면 도전해 볼만하다. 그래서 초보자들이 많이 지원하는 대회이기도 하다. 단 우리나라 지형의 특색이기도 하고, 또 평지만 달리는 것은 재미가 없다 보니 큰 언덕 두개, 해산령과 한목령이 있기는 하다. 도합 1,200m 정도의 고도인데 그래도 이정도면 적당한 높이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사이클이나 MTB가 아닌 미니벨로로 참여하는 사람들도 꽤나 있는 편이다.



화천DMZ랠리 코스 (사진출처 : 화천DMZ랠리 공식 홈페이지)

나는 올해가 3년차 참여하는 것이다. 자전거 대회를 쫓 참여하다 보면 시기별 사이클이 있고는 하다. 보통 3~4월에 시즌 온(겨울내 자전거를 타지 않다가 다시 타기 시작하는 시기를 뜻함) 하고 나서 바로 5월 초 마주하는 대회가 화천이다. 이후 본격적으로 난이도가 있는 대회들이 초여름까지, 또 가을철에 대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시즌 온을 하고 얼마나 몸이 풀려 있는지 스스로 테스트하는 기회이기도 하다.

처음 나갔을 때(22년)에는 사이클에 입문한지 얼마 안되던 시기였다. 또 화천의 언덕이 내가 도전한 제일 높은 언덕이기도 하였다. 당시 기록은 2시간 32분이었다. 대체로 MTB타는 이들까지 포함하더라도 3시간 이내, 아무리 늦어도 4시간을 넘기지는 않는 것 같다. 다음 해인 23년에는 2시간 38분이 찍혀 있다. 아니 어떻게 더 느려질 수 있지? 지금 글을 쓰면서 기록을 확인하니 당황스러운 지점이 있다. 23년의 내가 22년의 나보다 더 못타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당시 컨디션이나 날씨의 상황, 혹은 같이 달릴 사람들을 제대로 만나지 못했던 탓일 수도 있다. 이렇게 자전거 글을 기고할 만큼 올해는 겨울에도 쉬지 않고 자전거를 타면서 몸을 올려 놔다. 몸무게도 조금이나마 감량하였고, 실력도 꽤나 상승한 것이 느껴진다. 올해의 목표는 2시간 10분 이내에 들어오는 것. 이른 새벽 화천으로 가는 운전대를 붙잡으며 다짐해본다.

대회가 오전 9시에 시작이라 하여서, 넉넉히 8시를 조금 넘겨 화천에 도착하였다. 어떤 대회이던 조금은 일찍 도착해야 하는데 물론 대회 시작 전 미리 몸도 풀고 장비도 확인해보는 시간을 가지겠지만 여기에 부가적으로 주차문제, 화장실 문제 등도 언급할 수 있다. 이미 새벽부터 대회장 근처의 주차장과 노상은 차로 가득 차 있다. 아예 먼 거리라면 단체로 버스를 예약하거나 시차를 두고 도착하였을 텐데, 강원도권까지는 당일로 도착할 수 있다 보니 이른 아침에 차들이 우르르 몰리는 것이다.(그래서 대회 아침 화천에 근접할 때엔 자전거를 싣고 있는 차들 밖에 안보인다.)

또 화장실 문제도 무시 못한다. 물론 대회장 곳곳에 화장실들이 준비가 되어 있지만, 사람에 따라 반드시 아침에 거사를 치르는 이도 있고 또 몸을 조금이라도 가볍게 하려는 이도 있을 것이다. 22년의 나도 그 중에 하나였다. 대회 시작 전 긴장감까지 더해져 화장실 줄을 서는데 이미 수십명의 사람들이 볼일을 보기 위해 대기하고 있던 상황이었다. 심지어 변기 중에 하나가 막혀서 폭발해 끔찍했던 기억까지 보유하고 있다. 그래서 작년에는 푸룬쥬스(배변에 효과가 있다 한다.) 처방까지 스스로 해볼 정도였고, 다행히 올해부터는 다이어트를 겸해 사이클이 달라져서 한결 안심이었다.

대회가 시작하기 전, 내가 속한 동호회의 사람들을 만났다. 서로 웃으며 기념사진을 찍고 깔깔거린다. 속칭 ‘대회 뽕’이라는 게 있어서, 대회 시작 직전 아는 사람들을 만나면 매우 흥분감이 올라가고 그렇게 신날 수가 없다. 그리고 한편으로 나와 실력이 비슷한 사람들을 만나 함께 출발하는 것이 큰 이득이기에(모르는 사람들의 뒤를 쫓는 방법도 있으나, 내가 확실히 실력을 알고 있는 사람이 더 편하므로) 꼭

같이 출발하자고 말을 맞춰본다. 물론 이래놓고도 먼저 썩하니 출발해버리는 사람도 있다.

화천 군수, 경찰서장 등 지역의 주요 인사들이 인사말을 하고 나면 사회자가 크게 소리를 친다. “이제 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폭죽이 파파방 터지고 나면 최소 수백명의 사람들이 천천히 나아가기 시작한다. 올해 화천 랠리의 참석자는 총 3458명. 신청할 때 미리 A조부터 D조까지 정할 수 있고 한 조당 약 천 명 정도 배정되는 것이다. 이렇게 조 단위로 시차를 두고 출발하게 된다. 불참하는 사람들이 있다 쳐도 족히 수백명. 이 인원이 동시에 속도를 내면 위험하므로, 처음에는 퍼레이드 구간이라고 해서 천천히 나아가기 시작한다.

이 와중에서도 적당한 눈치 싸움이 벌어진다. 아까 같이 가기로 말을 맞춘 사람들과 열을 맞추거나, 혹은 적당히 잘 달릴 것 같은 사람들이 있다면 뒤에 붙어본다. 아무리 봐도 초보라서 당황해하고 어쩔 줄 몰라 하는 사람이 있다면 피해보기도 한다. 화천시를 가볍게 한바퀴 도는 퍼레이드 구간을 지나고 나면 비로소 계측구간(기록 시작구간)을 지나게 된다. 기계음이 뻘- 울리고 나면 비로소 대회가 시작한다. 다들 순식간에 속도를 끌어올린다.

나는 동호회 사람 8명과 순식간에 조를 이루게 되었다. 우리 동호회의 경우 다소 연습이 부족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어느정도 선두를 맡을 사람과 후미를 끌 사람들이 구분되어 있어서 금방 팩을 형성할 수 있었다. 자전거를 잘 타면서 덩치도 좋



수많은 라이더들이 출발을 하려는 모습. 자세히 보면 방금 폭죽을 터뜨린 흔적이 있다.



출발하자마자 팩(조)을 형성하는 모습. 같이 달려야 체력을 아낀다.

은 사람이 선두를 끌기 시작하면 그 뒤로 실력이 다소 아쉬운 사람들이 붙는다. 이러면 일종의 열차가 형성되는 것이다. 순식간에 속도가 30km/h 이상으로 올라간다.

물론 이미 시작하자마자 팀 복을 맞춘 팀들은 이미 치고 나간 상황이었다. 우리도 그런 수준 높은 팀만큼은 아니지만 짧지 않은 시간 같이 달려가고 술을 마셔가며 쿵쾅을 맞춘 사이. 작은 그룹이나 개인들을 제치고 나가면서 점점 속도를 끌어 올린다. 저 멀리 화천의 산세가 보이지만 아직은 북한강 자락을 낀 평지의 도로이다. 이렇게 20km를 달려나가야 한다. 속도는 점점 올라가 35km/h를 도달하였지만 그렇게 힘든 느낌은 없다. 선두가 잘 끌어주고 바람을 잘 막아줬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앞서 말한 대회 뽕이 미치는 영향이 대단하다. 평소라면 최선을 다해 쥐어짜야 나오는 속도가, 대회에서 팩으로 달리면 그냥 평균 속도가 되고 만다.

웃음기 가득한 목소리로 이렇게 달려도 되냐, 다들 왜 이리 잘 달리냐 농을 던진다. 그동안 좁디 좁은 한강길을 조심이 달리다 이렇게 뽕 뿜려 있는 도로를 달려본 게 얼마만인지, 다들 포효하듯 달려나간다. 스치는 바람에 기분이 좋고, 지나치는 다른 라이더들을 보며 약간의 승리감을 느껴 보기도 한다. 그러나 이런 와중에도, 곧 해산령이라는 언덕이 나타날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나름은 완급조절들을 해 나가는 것이다.

시작지점 후 20km구간은, 막상 들으면 거리가 있어 보이지만 30~35km/h 이상으로 달리면 30~40분이면 끝나게 된다. 이때까지는 몸푸는 과정인 것이다. 이제 해산령으로 진입한다는 표지판을 보면서 팩들의 속도가 조금씩 줄어가기 시작한다. 길에 경사도가 생기고 선두의 팩들이 조금씩 느려지며 사람들이 뭉칠 때, 나는 혼자 치고 나가기로 하였다.

같이 달린 동호회 팩보다 먼저 치고 나온 이유는, 내가 그들보다 월등히 잘 달려서가 아니라 오히려 업힐(언덕을 오르는 것)이 매우 느린 편에 속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가속도를 얻고자 함이었다. 평지에서 유지하였던 가속도로 잠깐 탄력을 받아 언덕을 타본다. 잠깐 2~30m는 순간적으로 올라왔다. 하지만 이윽고 허벅지에 뻐근하게 내 무게가 실리기 시작한다. 왜 이리 나는 무거운 것일까. 왜 살을 더 빼지 못한 것일까.

하나 둘 하나 둘. 슬슬 경사도가 올라가기 시작하고 마음속으로 리듬을 타기 시작한다. 요즘은 자전거 속도계가 잘나와서, 지금 내가 오르고 있는 언덕의 경사도를 보여준다.

3도, 4도를 넘어서더니 금새 5~6도를 넘어선다. 이정도면 눈으로 봐도 확 올라온 것이 느껴지는 각도이다. (남산이 평균 7~8도를, 북악 팔각정 가는 스카이웨이가 평균 6~7도의 경사를 이루고 있다. 물론 경우에 따라 급작스럽게 10도를 넘는 구간도 있다.)

자전거로 업힐을 하는 것은 마치 산을 타는 것 과도 비슷하다. 마치 계단 몇 개 정도는 뛰어올라가듯, 각도가 높더라도 짧다면 순간의 힘으로 치고 올라갈 수 있다. 하지만 언덕의 길이가 길어서 꽤 가야 된다면, 일찍부터 나에게 맞는 리듬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한 걸음, 한 걸음 내게 맞는 걸음걸이로 산을 오르듯, 자전거도 페달링을 한번씩 차근차근 내 리듬을 찾아가며 밟기 시작한다. 해산령 업힐은 대략 6km가 넘는다. 그래도 중간중간 각도가 낮아지는 곳도 있어서 잠깐 다리를 풀어줄 수는 있다. 마침 자전거가 스르륵 미끄러지듯 내려가며 아주 잠시나마 내리막인 구간을 타니 맞바람이 잔잔하지만 시원하게 불어와 준다. 나와 비슷하게 업힐을 오르던 모르는 여성 라이더 분이 순간적으로 "아 너무 시원해~" 하며 탄성을 내지른다. 계속 계단 오르기 운동을 하는 것과 같으니 열도 많이 난다. 그렇게 한 30여분을 씨름을 하고 나니 이윽고 정상에 눈에 보인다.

해산령 정상에는 기록 계측기가 있다. 일단 여기까지가 1단계 기록을 측정하는 것이다. 언덕을 올랐으면 내려가야 하는데, 내려가는 구간까지 기록을 측정한다고 하면 위험하게 내려올 수 있으니, 애초에 언덕 정상까지만 기록으로 계측하고 내리막은 안전하게 천천히 내려오라는 조치이다.

계측기 너머로 바로 직선으로 펼쳐진 해산터널이 존재하고, 터널 끝에 보급소가 위치해 있다. 화천 랠리를 처음 온 초보자들은 계측기를 지나자마자(해산령 정상에 도착하자마자) 자전거를 내던지다시피 하고 쉬는 경향이 있다. 몇 km언덕을 올라왔으니 보통 힘들겠는가. 그래도 여기서 멈추지 말고 터널을 지나 보급소까지 도착해서 쉬는 것이 정석이다. 보급소에서 간식도 나눠주고 흠어진 일행들을 만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대회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조금 지쳤더라도 멈추지 않고 해산 터널까지 쭉 달려나간다.

여태 언덕을 오르며 땀을 뻘뻘 흘리다가 시원한 터널이니 다들 환호성을 지르면서 편하게 달린다. "아 정말 힘들었어!" "뻘뻘했다!" "아이고!" 하는 외침이 곳곳에서

터져나오지만, 다들 이제 큰 고비 하나 넘겼다는 성취감에 시골벽적 웃으며 터널을 나선다.

첫번째 보급은 에너지바와 초코파이, 그리고 이온음료가 배급되었다. 대회마다 다소 다르지만, 보급(간식)을 배분하는 것에는 크게 인색하지 않은 편이라 한입 몰아 넣고 더 얻는 경우도 있다. 어차피 대회 중이라 배를 채우기보다 일시적으로 에너지를 보충한다는 개념이 더 크다. 나는 종이컵에 담긴 이온음료를 연거푸 네 잔 정도 얻어 마셨다. 배는 고프지 않았는데, 햇살이 제법 있는 탓인지 땀을 많이 흘린 것 같았다. 앞서 헤어진 동호회 사람들을 만나 방금 해산령은 어땠는지 물으면서 인사를 나눈다. 다들 힘들었다고 난색을 표하지만 진심은 아닐 것이다. 어차피 다음에 만나는 두번째 언덕, 한묵령이 난이도가 더 높기 때문에 어느정도 체력을 분배하며 올라왔으리라.

한숨 돌리고 가던 길을 마저 가기로 한다. 올라온 만큼 내려가는, 꽤나 긴 해산령의 다운힐(언덕을 내려오는 것)이 기다리고 있다. 올라온 고생이 바람에 날라가듯 흘날리고, 어느덧 해산령 경치에 취해 미끄러지듯 내려간다. 페달링을 할 필요도 없다. 그러다가 문득 사람들이 속도를 줄이는 것을 보게 된다.

아 포토존이구나. 대회의 묘미 포토존이다. 자전거 대회에는 참가자들의 사진을 무료로 찍어주는 분들이 계신다. 달리는 라이더들의 사진을 거진 다 찍어준 다음 카페 같은 곳에 올려주는 것이다. 한 귀퉁이에 업체 로고 등을 워터마크로 삽입하는 정도 말고는 사실상 재능기부와도 같은 성격이다. 대회의 묘미이자 출전 이유이기도 하는데 굳이 상의한 것이 아님에도 서로 양보해주고 간격을 유지하여 사진 찍는 분들이 잘 찍을 수 있도록 화합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대회의 묘미인 사진. 워터마크를 제외하면 재능기부에 가깝다. (사진출처: 에يدي바이크)

그렇게 다운힐을 쪽 내려오면 평화의 댐이 있고, 여기가 사실상 일행들과 마지막으로 모이는 곳이기도 한다. 평화의 댐이 가진 구구절절한 사연은 뒤로 하고, 이럴 때 아니면 평화의 댐까지 언제 와보겠는가. 처음 온 사람들은 반드시 이곳에 멈춰서 기념사진을 찍고는 하고, 또 나처럼 동호회 사람들과 같이 온 사람들도 여기서 단체사진을 찍어보는 것이다. 화천 랠리에 포함된 가장 중요한 포토존일 것이다. 이후에 연결되는 DMZ 지역은 촬영이 불가하기 때문에 사실상 랠리 중에는 거의 마지막 사진촬영 구간이다.

화천 랠리는 풀네임 화천 DMZ 랠리 라는 이름 답게 DMZ를 들어가볼 수 있다. 이게 이 대회 of 묘미 중 하나이다. 군부대의 협조를 받아 1년에 단 한번, DMZ 길을 개방하여 들어가볼 수 있는 것이다. 여기서부터 2차 계측이 시작된다. 그러나 대체로 무리를 하지 않고 라이딩을 한다. 군의 순찰도로를 이용하는 것이지만 바로 옆에 DMZ의 오염되지 않은 자연 경관이 펼쳐진다. 3번째 오는 것이지만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자연이라 생각하니 매번 신기할 뿐이다. 군 시절을 굳이 DMZ에서 해본 것이 아니라면, 사실 민간인으로써 이 곳에 올 일은 없을 것이다. 북한강 자락 너머로 널리 보이는, 사람이 전혀 존재하지 않을 산새를 바라보면서 잠깐 회복의 시간을 가져본다. 그렇게 몇 키로 달렸을까, 군 부대가 끝나는 지점부터 해서 바로 언덕이 보인다. 어쩌면 화천 랠리의 최종 보스라고 할 수 있는 한목령이 눈 앞에 펼쳐진다.

한목령의 길이는 해산령과 비슷한데 고도는 조금 낮다. 해산령이 700m, 한목령은 520m. 그런데도 한목령이 더 어렵다고 한다. 그 이유는 첫째로는 이미 여기까지 온 이상 기운을 어느정도 썼기 때문이고, 둘째로는 한목령 정상 지점이 매우 가파르기 때문이다. 체감상 정상까지 한 500m정도 남기고 경사도가 10도 이상, 경우에 따라 16~17도 이상 혹 올라간다. 거기다 굽이치는 헤어핀(머리핀 모양으로 급격하게 휘어진 구간)이 몇 군데 있다. 가뜰이나 언덕 올라가느냐 힘들어 죽겠는데 헤어핀 구간을 만나서 핸들을 틀어야 될 때가 매우 고통스럽다. 아무튼 그럼에도 한발한발 올라가기 시작한다. 다시한번 앞서 언급한, 업힐을 오르는 방법을 되새겨 본다. 기어를 많이 풀고 한발 한발. 너무 심하게 힘을 쏟으면 무릎이나 발목이 다칠 수 있다. 기어를 아주 가볍게 내린 다음, 부드럽게 페달링을 한다면 웬만한 언덕도 결국 정복할 수 있다고 한다. 이론적으로는 말이다.

하지만 나는 결코 가볍지 않다. 분명 가볍게, 차근차근 올라가야 하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이미 한발씩 내딛을 때마다 육중한 무게가 실리기 마련이다. 등산과 비교한 것처럼, 덩치가 큰 사람은 이러나 저러나 쿵쿵거리며 무게를 싣고 올라가게 되고 다리에 타격을 받는다. 등산이나 러닝보다 안전한 운동이 라이딩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왼쪽 오른쪽 번갈아 가면서 허벅지에 무게가 실리기 시작한다. 아는 맛이 더 무섭다고, 작년에도 타본 언덕이라 점점 다가올 고통을 알기에 더욱 괴롭다.

업힐을 오르는 것을 클라이밍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렇게 자전거로 클라이밍 하는

것을 즐기는 이도 있다고 한다. 고통을 즐기는 사람들이 아닐까 싶기도 하지만, 사실 나도 클라이밍에서 보람을 느끼는 타입이기는 하다. 밑에서 봤을 때는 못 올라갈 것 같은 언덕을 결국 정복하였을 때 느끼는 보람과 쾌감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다들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경사도가 20도에 다다르게 된다면 고통이기보다 경악을 느끼게 된다. 우씨 작년에도 이렇게 높았었나? 핸들바는 왜 자꾸 들리는 거야 무섭게. 고통과 공포는 확실히 다른 것이구나. 작년(23년)까지 한묵령 정상은 약 3~4개 정도의 헤어핀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경사가 높으면서도 꼬불꼬불한 길이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올해는 도로공사를 하여서, 정상에 있던 헤어핀 하나를 일직선으로 펼쳐 놓았다. 그러니 휘어지면서 (아주 조금이나마) 완만했던 길이, 일직선으로 쭉 퍼지면서 더욱더 경사가 높아져 버린 것이다. 사람마다, 사용하는 속도계마다 조금씩 다르게 나오겠지만 정상 직전의 급경사는 20도를 훨씬 넘어 25도에 육박했다고 한다.

내 앞에 달리던 이들 중 결국 그 경사를 못 견디고 내리는 이들이 속출하였다. 나도 마음이 흔들리는 것이다. 이거 내려야 하나 좀더 버텨볼까. 아이씨 정상까지 거의 다 도착하였는데. 그런 잡념에 휩싸이면서 결국 꾸역꾸역 정상까지 올라가게 되었다. 후들리는 다리로 자전거를 내리고 뒤를 돌아보니 저 멀리에서 부터 사람들이 꾸물꾸물 언덕을 올라오고 있다. 그것을 보는 기분이 참 묘하다.



한묵령 정상에서. 핸드폰을 꺼 들어서 찍었음에도 경사도가 아찔하다.

한묵령 정상에선 마지막 보급지가 있었고 바나나와 이온음료를 나눠줬다. 그러나 여기까지 도착하였으면 이제 골인까지 다운힐에 평지구간이다 보니, 굳이 역지로 에너지를 채워 넣지 않아도 될 것 같았다. 심리적으로도 이제 힘든 고비는 다 넘겼고, 마지막 힘을 쥐어짜 달려나갈 차례라고 생각하면 다시 아드레날린이 솟구쳐 올라오기 시작한다. 한숨만 돌리고 바로 골인을 향해 달려간다.

내리막 이후 평지, 약 20km정도의 구간이다. 앞서 처음의 20km는 이제 막 라이딩을 시작했고 또 대회뽕이 가득했던 지라 힘든 지 모르고 달려나갔다면, 이제 마주하는 20km는 이미 체력이 어느정도 소진된 상태로 달려나가는 것이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힘을 쥐어짜 스퍼트를 낼 것이 분명하다. 그런 사람들과 팩을 이뤄서 같이 달리면 분명 힘들더라도, 뒤처지고 싶지 않은 마음에 최선을 다해서 페달을 밟게 된다. 서로 돌아가며 바람을 막아주는 역할도 있고. 만약 팩에 끼지 못하게 된다면 마음이나 육체적으로나 꽤 힘들어질 것이다. 마침 처음에 같이 달린 동호회 사람 한 명을 만난다. 달려 나가며 같이 골인하자고 소리를 지르곤, 이윽고 서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며 바람을 막아주며 달린다. 처음보다 힘이 빠진 터라 한 사람이 선두에서 오래 버티질 못한다. 그렇게 둘이 달리니 어느덧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하나 우리에게 붙기 시작하고 이윽고 어느 정도 규모의 팩이 형성되었다.

그런데 큰일이다. 마주 오는 맞바람이 상당히 거세다. 역풍을 제대로 맞기 시작한다. 자전거 자체도 속도가 붙기 시작하면 공기저항이 상당하지만 역풍까지 제대로 맞으면 거대한 파도들을 꿰뚫고 가는 느낌이다. 더욱이 내가 선두인 상황. 때마침 같이 달리던 동호회 사람이 다리에 쥐가 났다면서 뒤로 흘러버렸다.

숨이 가빠온다. 뒤에 있을 누군가에게 손짓을 하며 선두를 바꿔달라고 부탁해본다. 아까 그 사람이었다면 굳이 말을 안 해도 순서를 바꾸어 주겠지만, 생판 모르는 사람들만 모여 있으니 아무도 앞으로 나서질 않는다. 이런 매너 없는 인간들! 내 덕에 바람을 피해가고 있으면서, 자신들이 바람을 막아줄 생각을 하질 않는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는 것이, 나도 이렇게 힘든데 모두 다 지쳐 있을 것이다. 사실 비슷한 실력들을 가지고 있으니 지금 이순간 같이 달리고 있는 것이겠지. 속도를 줄이지 못해 입가에 침이 흐를 정도였다.

결국 그 상태로 10km정도를 끌고 나서 나는 흘러버리고 말았다. 내가 흐르자마자 뒤에 있던 라이더들이 다들 우르르 골을 향해 달려나간다. 그나마 그 중 한 명이 엄지손가락을 척! 들면서 내게 고생했다고 수신호를 보내준다. 그래 그거면 됐다.

그렇게 달린 대회 결과는 2시간 13분. 적당히 누군가의 뒤에 붙어 드리프팅을 하였다면 힘을 아끼고 좀 더 일찍 들어올 수 있었을 텐데. 졸지에 선두를 맡아서, 또 졸지에 그 속도를 유지해보겠다고 무리한 게, 골인 직전에서 힘이 빠져버렸다. 그래도 작년과 재작년에 비교하면 나름 나쁘지는 않은 성적이라 대체로 만족해본다. 대회라는 것의 소회를 담담히 풀어내고 싶었는데, 쓰다 보니 지면을 꽤나 사용했

다는 생각이 든다. 당장 다음주에도 대회가 있다. 그리고 아마 관련된 글을 또 쓸 수도 있을 것이다. 심지어 다음 주는 국내에서 손꼽히는 난이도가 있는 대회이고, 사실 자신은 없음에도 한번 도전해보기로 하였다. 모든 것이 털리고 나서 덤덤하게, 도전이란 것이 무엇인지 한번 꼬적여 볼 것 같다. 🐈



화천DMZ렐리

2024-05-12

Name	오종원
Bib No.	3434
Course	CYCLE
Results	02:13:28.41
Start Time	09:11:38.26
Finish Time	12:24:48.81
Section 1	10:15:52.06 (01:04:13.80)
Section 2	11:06:01.17 (01:54:22.91)
Section 3	11:49:17.44 (02:37:39.18)
Section 4	11:58:50.47 (02:47:12.21)

CYCLE 전체 순위	865 / 3458
CYCLE 남자 순위	774 / 3017
CYCLE 사이클남자베테	241 / 864

(좌) 22년 당시 기록증. 화천군수가 증명하는 기록증을 소장할 수 있다. / (우) 올해(24년)의 기록.



X

작가 & 전시기획자

그 곳에 가고싶다 : 대전(大田)

“..너는 불려도 대답이 없고 모든 것은 지루함과 꿈으로 가득찬 곳..유일한 돌파구인 음악과 예술, 먼거리의 펜팔 친구들.. 기다란 도로와 조용한 삶은 나에게 상상의 공간을 만들어 주었고 너라는 존재는 나에게 이제 화석이 되었다...”

내가 무엇을 쓰고 있는지, 여기에 무엇을 쓸지 잘 모르겠지만 이것은 나의 '책'을 만들기 위한 나의 글쓰기 습관의 시작일 뿐이다. 이 책이 어떤 모양으로 어떤 스타일로 엮어질지는 알 수 없다. 아마도 40년이 넘는 지금까지의 나의 삶을 묘사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추구하는 잃어버린 유토피아를 묘사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 글을 쓰면서 갑자기 수 년전 독일에서 거주할 당시 바이에른 주 출신의 한 독일 여성과의 말다툼이 기억 났다. 그녀는 나에게 그렇게 한국 문화를 잘 알면 책을 쓰지 뭐하러 따지냐고 독일어로 나에게 쏘아대었다. 책? 이게 뭐지? 그런 생각이 그때 들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하니 책은 한 방향으로 가는 매우 긴 물줄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

난 대전 출신이다. 대전은 ‘한밭’ 이라 불리는 산으로 둘러 쌓인 평평한 평지의 도시이다. 조용하고 느린 공간이다. 시간이 멈춘듯한 정말 ‘노잼’ 도시이다. 6.25 이후 본격적으로 한국에서 도시가 발달되면서 이 그냥 스쳐지나갈 땅에 철도가 놓이며 본격적으로 ‘대전’이란 도시가 발달되었다. 대전의 유명한 빵집 ‘성심당’도 철도가 놓이며 대전 역에 사람들이 오가면서 빵집 주인이 밀가루 한포대로 시작하며 도시와 같이 번성하게 되었다.

대전 주민은 약간은 충청의 시골 사람과 같은 고지식한 태도를 가지고있다. 나에게 대전 사람들은 별 말이 없는 사람들로 기억된다. 수다를 떨어도 목소리도 좀 작고 종종 양반인 척한다. 그렇지만 특유의 한국사람처럼 공공 장소에서 통명스럽고 가다가사람을 치고가는 무례한 버릇을 역시 대전 사람도 양반답지 않게 가지고 있다.

난 대전 동구 홍도동에서 자랐다. 우리 가족은 1970년대 지어진 5층 건물의 아파트에 살았다. 당시 70년대 한국 아파트는 콘크리트로 지어졌고, 집의 문과 문턱도 나무로 만드는 등 인테리어 디자인 재료 대부분이 나무로 이루어졌었다. 당시 우리 아파트 바로 옆에 몰몬 교회가 있었다. 이 교회는 지금도 존재한다. 그래서 나는 어려서 가끔 백인을 보곤 하였다. 특히 몰몬교 사람들은 한국어를 너무 잘해서



난 당연히 모든 외국인이 한국어를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사실 사는 동네에서 멀지 않은 곳에 한남대학교가 있고 또 국제 외국인 학교가 바로 옆에 있어서 고등학교 때는 영어 예배를 드리러 국제 학교에 갈 때마다 외국인들을 보곤하였다. 심지어 우리 아파트에도 미국인이 살았었다.

현대그랜드 오피스텔 [2023]

현대그랜드 오피스텔

나에게 어렸을 때 가장 큰 건물은 63빌딩이 아니라 동구 성남동에 있는 현대그랜드 빌딩이었다. 우리집 아파트 옥상에 올라가면 이 건물을 볼 수 있었다. 밤에 보면 건물의 환한 빛이 어린 나에겐 매우 웅장하고 꽤 커보였다. 그래서 자다가 꿈을 꾸면 항상 내가 현대그랜드 빌딩쪽으로 날아가는 꿈을 꿔다. 청소년이 되어서 고등학교를 갈 때마다 버스를 타면 이 건물을 매일 봤었다. 항상 건물 주변으로 사람이 붐볐다. 그 땐 좀 더 현실적이 되어서 시내를 나가기 전 모던한 빌딩을 본다고 느꼈다.



1992년도에 이 건물이 지어졌을 때는 현대그랜드오피스텔은 대전에서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오피스텔이었다. 2000년대가 들어서고 관리주가 파산하였고 지금은 건물의 상인들이 다 빠져나가고 건물도 부도가 나서 대전 시에서 폐건물로 분류하였다. 부산의 네오스포 상가처럼 유명건물이 된 것이다. 마치 요양병원에 입원한 노인으로 인생의 황금기를 다 겪고 죽을 날만 기다리는 인간이 된 셈이다. 한국 근대화 건물의 생명이 인간의 한 생명보다 매우 짧은 것이 매우 안타깝다. 하지만 오직 자본에 의해서 한국의 근대화가 이뤄졌기 때문에 대부분 건물은 쉽게 철거되고 빠른 시간 내에 다른 건물로 대체되어진다. 우리는 한 건물이 50년이 채 되지도 않았는데 20년이 지나도 오래됐다고 빨리 새로 지어야한다고 한다. 이로 인해 우리는 쉽게 예전 건물을 잊어버린다. 그리고 우리의 기억도 쉽게 상실된다.

도시재생은 어떻게 보면 죽어가는 도시 건물을 심폐소생술로 다시 숨을 불어넣는 것이다. 성남동과 가까운 대전역 뒷거리인 소재동에 2017년 공간 기획 스타트업 기업 '익선다다'가 서울 익선동에 도시재생 프로젝트를 성공시키고 대전 동구 소재동에 신상 카페와 여러 외국 음식점을 들여 공간을 개발하면서 힙한 분위기를 만들었다. 이로 인해 소재동의 무너져가는 근대화 건물에 생명을 불어 넣으며 대전의 많은 젊은이들이 모였다. 하만 요새는 다시 가보면 죽어가는 카페도 있고 결국 철거하기로 지정된 구역도 보인다. 자본이 없으면 한국 도시건물은 금방 무너지는 것이 다인가? 이게 스스로 생명을 다하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든다. 여전히 도시 공간은 '돈'으로 공간을 움직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대전 소재동의 한 골목 [2024]



반면 대전 동구 대흥동 카페거리도 그렇고 대전 동구 원도심은 성심당과 카페거리 그리고 술집으로 대부분의 건물의 생명이 유지되는 듯 하다. 여긴 소비 자본이 계속 흐르는 것이다.

사실 동구와 중구 지역은 나에겐 십대를 보낸 장소이다. 중구청 건너편 교보 문고에 가서 음악, 영화 그리고 수 많은 책을 즐기며 유럽에 가는 꿈을 키웠다. 중학교 3학년 때 언니를 따라서 중구에서 대전 영화 동아리에 참석하여 프랑스 영화 ‘증오’와 헝가리 영화 ‘붉은 시편’을 봤다. 당시 이 공간은 점점 번성하는 서구의 학원가 동네와 달랐고 유성구의 상막한 허허벌판과 바로 나가면 시골이 보이는 충남대와 카이스트와는 정말 다른 좀 더 인간적인 모습을 보인 곳이 많았다. 특히 중구는 상업적인 공간도 있었지만 문화나 예술을 즐기고 싶은 소모임을 할 조그마한 소극장과 바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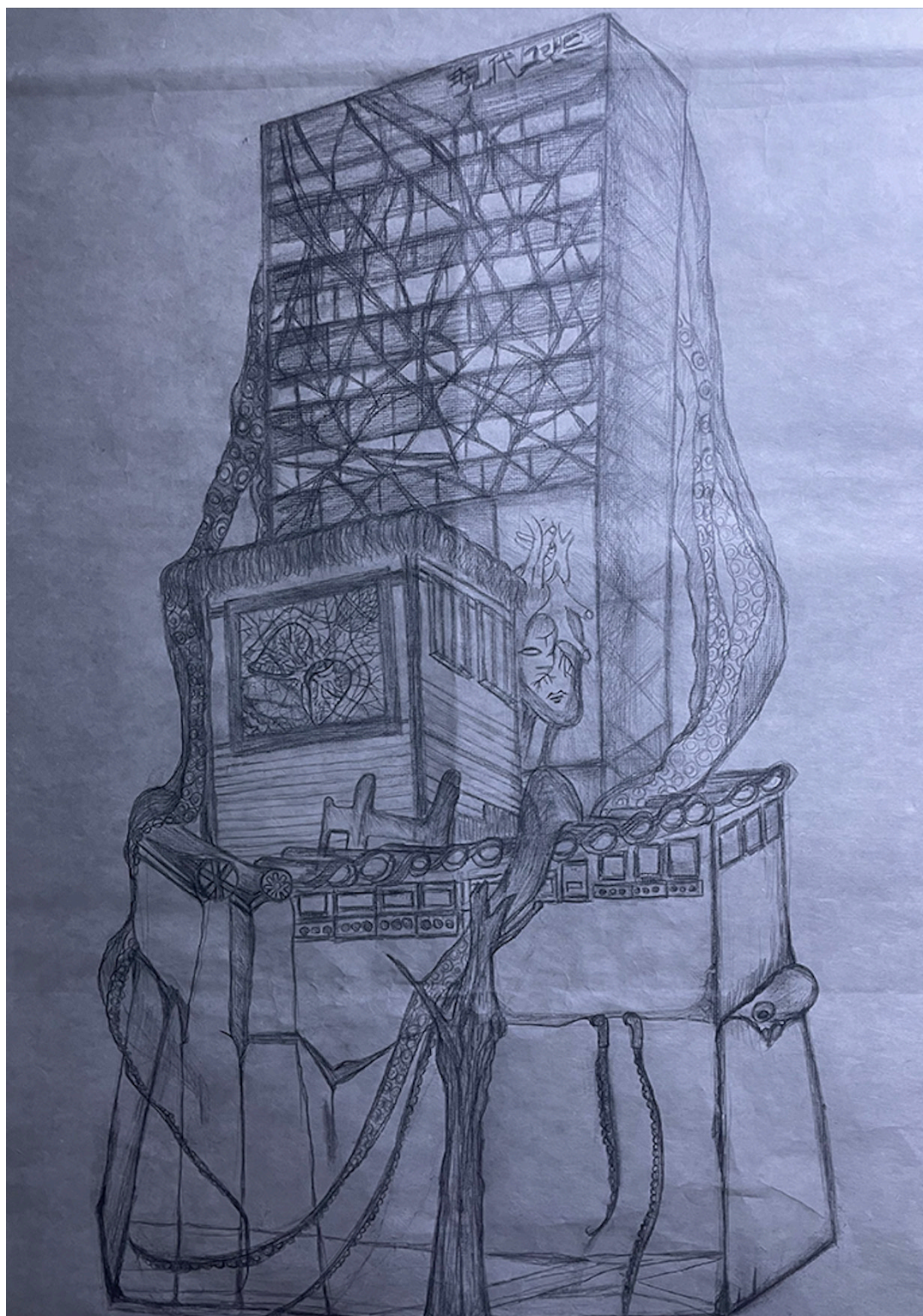
대전 소재동의 옛날 슈퍼마켓 [2024]

당시 나는 중학교 친구들과 몰려서 다니며 재미를 느꼈고 고등학교 때도 종종 혼자서 음반을 사거나 영화를 보러가곤 하였다. 시내에 나가면 해외 펜팔 친구들에게 보낼 편지를 사고 친구들과 ‘바로 그집’ 떡볶이를 먹으러 가거나 성심당에서 빵을 샀다. 그리고 종종 음반 가게에서 최신 음악을 고르는 등 이 모든 것을 여기저기 시내를 누비면서 하는 것이 나의 일상이었다. 서구의 큰 대로에 직선으로 걸어서 이동하는 방식보다는 지하상가를 통해서 좀 더 유선형적으로 자유롭게 걸었다. 굳이 모든 것을 차를 타고 이동하지 않아도 해결할 수 있었다.

이젠 대전도 나이든 도시가 되었다. 동구, 서구, 유성구와 상관 없이 인구는 급격히 감소되어 아파트 부동산도 폭락세이다. 오히려 더 잘된 일인지 모르겠다. 모든 것은 돌고 돌기에 동구가 구도심이고 서구가 신도심이었는데 이젠 유성구가 신도심으로 되고 서구는 그냥 학군이 있는 동네이고 다시 동구가 소제동, 대흥동으로 살아나면서 점차 돌고 도는 추세니 말이다.

중요한 것은 모든 도시마다 특색이 있는데 이는 ‘지역색’이라는 것이다. 대전을 나타내는 것은 서구와 유성구의 과학산업단지도 아니고 93년 대전 세계 엑스포도 아니고 ‘대전의 문화’라 자처하는 성심당도 아니다. 대전이라는 도시가 가진 지역색은 아마도 ‘노잼’일 것이다. 팻말이 없으면 그냥 스쳐지나갈 수 있는 곳이다. 공주가 금강을 가지기에 대전은 그 물줄기인 갑천, 대전천을 가진다. 그냥 지나가는 공간, 사실 스트레스가 없기에 살기 편해 사람들이 가서 그냥 눌러 앉은 교통의 요지인 ‘노잼’ 공간이 바로 대전의 지역색이다.

난 지루했기에 꿈을 꿔다. 가족이 싫었고 도시가 싫었다. 그래서 떠났다. 하지만 결국에 다시 돌아와도 여전히 대전은 ‘노잼’이고 나의 과거의 도시였다. 다시 돌아와서 프랑스 친구를 만나서 대전 중앙동 시내에서 술을 같이 마셨다. 내가 색깔이 다른 외국인과 얘기할 때마 기이하게 쳐다보는 대전 노잼 시민들을 보면서 난 느꼈다. 내가 왜 이 도시를 떠날수밖에 없었는지... 난 이 도시에 속한 사람이 아니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면 먼저 ‘아니다’로 구분한다고 오래전에 들었었다. 바로 내 인생의 첫 시작은 내가 속할 수 없는 곳에서 내가 태어난 것이었다. 대전은 나에게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는 첫 여정의 시작이었다. 🐱



현대그랜드, X [2023]



당신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 독자 의견을 듣습니다!

문화예술인은 물론, 자신만의 세계를 소개하고 싶은 누구나 환영합니다.

알리고 싶은 것, 하고 싶은 말, 자신의 작업물, 소개하고 싶은 것들. 편하게 남겨주시면 아카이브 하도록하겠습니다.

pigheadlab@gmail.com / A4, 3페이지 정도 혹은 그 이상 / 프로필 사진과 필명, 자기소개

<지금 이시각> 및 관련한 모든 콘텐츠 저작권은 피그헤드랩 (pigheadlab)과 편집자, 개별 콘텐츠 당 창작자에게 있습니다. <지금 이시각>내 콘텐츠 사용, 문의 등은 우선하여 피그헤드랩에 연락을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시각 TIME NOW_2024. 5, 스물세번째

발행/편집 : 오종원

발행처 : 피그헤드랩 pigheadlab(www.pigheadlab.com)

웹사이트 내 PDF로 관람 가능

문의 : pigheadlab@gmail.com / 01082339033

이번 달 참여 필진 : 김희진, 오종원, 이채연, 줄리, X